

지역특화형 유아예술놀이 개발 선도

전주문화재단, '전통, 마음에 피어나' 8월 1일부터 총 10회 매주 일요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운영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이 전주의 지역특화형 유아예술놀이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섰다. 8월 1일부터 운영되는 유아예술놀이 프로그램인 '전통, 마음에 피어나'는 팔복예술공장 유아예술놀이 전용공간에서 매주 일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지역특화형 유아예술놀이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섰다.

'전통, 마음에 피어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2021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를 통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예술의 소리, 몸짓, 조형을 융합, 전통음악, 공예, 한국무용 등의 장르를 유아가 놀이로 인지하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통분야 문화예술교육사와 청년예술인이 협업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예술놀이는 유아의 행동발달과 인지능력 향상 과정에서 오감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로, 전문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기획, 실행, 행정 등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f.or.kr) 및 팔복예술공장 누리집(www.palbokar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손으로 공예로' 소식지 구독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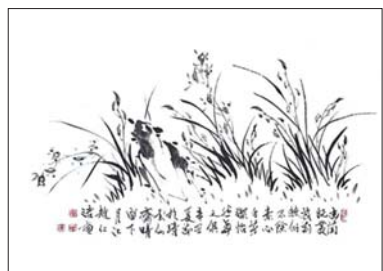
전주공예품전시관, 1년에 4번 발행 계간지... 다양한 공예문화 소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지역 내 공예문화를 담은 소식지 '손으로 공예로' 구독자를 모집한다. 26일 전당에 따르면, 이 소식지는 대중에게 공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다. 특히 ▲공예 소개 ▲공예인 ▲공예 공방 ▲전문가 칼럼 ▲해외 공예마을 ▲공예 지도 등의 테마로 다채롭게 공예문화를 소개한다. 작년부터 발행한 소식지는 올해 6월까지 총 4회 발행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예인 34명, 전문가 칼럼 7회, 지역 소개 8곳 등을 담아 전국 15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 앞으로 가을호(9월)와 겨울호(12월) 두 차례 발행이 예정돼 있으며, 현재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 신청자 중 선착순 500명에 대해서는 구독비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편집장을 맡은 김혜원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손으로 공예로는 공예 종사자뿐 아니라 공예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도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지역 내 공예문화를 담은 소식지 '손으로 공예로' 구독자를 모집한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구독 신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월강 조인호 작가 서예전 군산서 개최

월강 조인호 작가가 제6회 서예전을 갖는다. 이번 서예전은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군산현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조 작가는 이번 서예전에서 국화와 난초, 매화, 대나무를 주제로 한 한국화와 서예, 합죽선 부채, 인보작품 등을 선보인다. 한편 조인호 작가는 2009년부터 개인전을 개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특히 한국서예협회 30주년 초대전, 전북미술협회 40주년 초대전에 참여, 한국서예협회 군산지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강노인복지관 사군자 지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조정희 작가, 무주문화원에 유화 41점 기증

최북미술관에서 기증식 가져

서정적인 유화 작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주 출신 조정희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무주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조정희 유화 작가는 26일 최북미술관에 위치한 무주문화원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맹강상 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증서 수여식을 통해 무주문화원에 유화 41점을 기증했다. 이날 증서 수여식에는 이복란 전 군의원을 비롯해 이규평 안국사사무장과 무주초등학교 48회 동창회 조용철 회장, 조원익 부회장도 함께 했다. 이들 작품들은 조 작가가 지난 수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완성한 것으로 기증 배경은 그의 고향에 대한 진한 애향심에 나온 것이다. 조 작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무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많다"며 "무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복지에 보탬을 주기 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무주군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활의 여유로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쏟아 부어 완성된 작품을 기증한 결단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며 "힘들어 하는 무주군민들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무주문화원 맹강상 원장은 "조정희 작가의 이번 기증으로 관내 문화예술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문화원은 기증받은 조 작가의 작품을 관내 공공건물 등에 게시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감동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격려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격정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을 제시한 책을 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실력과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사람

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필수로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래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 복지국가로 가는 답을 찾고자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쓰게 됐다. 이에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성찰과 고민,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된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뉴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